황제까지 아우르고

(행25:1~12)

1.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삼 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3.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4.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5.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6.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팔 일 혹은 십 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8.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10.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12.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황제까지 아우르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 1982년 누군가가 타이레놀 캡슐에 청산가리를 투입해 시카고 지역에서 7명의 사망자

가 발생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은 비상회의를 열고 5분 만에 회사의 운명을 걸고 결정을 내립니다. 실제 사건은 시카고 지역에서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그 당시 미국 전역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타이레놀 전량을 회수하고 전 국민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 모두 1억 달러의 비용이 손실로 발생하고 2500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1위의 자리에 있던 타이레놀의 매출이 급감하게 됩니다. 모두가 예견할 수 있는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저라도 타이레놀은 일단은 안 샀겠지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상황은 예상을 벗어나 반전됩니다. 존슨 앤 존슨의 이러한 대 사회적 책임감과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 고객들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갖게 되면서 잃었던 모든 고객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지는 '이 사건을 통해 존슨 앤 존슨은 비용이 아무리 들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한다는 기업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타이레놀은 캡슐이 없어지고 알약으로 제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위기의 순간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는 중대한 결정을 단 5분 만에 내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비상회의에 참석한 자들의 마음 안에 기업의 DNA가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핵심가치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자'였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 핵심가치라는 말이 대체 뭡니까? 간단히 말해 다른 모든 것에 우선시하여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선순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있어서 핵심가치란 이윤보다 더 우선적인 실천 덕목이 되는 셈이지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핵심가치가 핵심가치다우려면, 기업의 성공을 위해, 즉 이윤을 많이 남기는 기업이 되기 위해 핵심가치를 지키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생각이지요.

2)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지구 위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을 경영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잘못됨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지구 경영에는 어떤 핵심가치가 적용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섭리하실 때 어떤 우선순위의 법칙을 따르고 계시며 또 달리 말하면 당신의 뜻을 결정하시고 행하시기 위해 어떤 가치기준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 핵심가치라 하니까 언뜻 연상되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입니다. 창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존슨 앤 존슨이 감수해야 했던 것은 1억불의 재정적인 손실과 기업 존립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기업이미지 손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 사는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을 때 그 손실은 액수로 따지면 얼마였을까요?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가 유실 되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존슨 앤 존슨은 그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윤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자'는 핵심가치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의 핵심가치는 무엇이기에 이런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으시면서 대홍수 심판을 행하신 것일까요?

창6:3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면에서 쓸려 없어진다면 육축도 기는 것도 새도 모두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대체 대홍수 심판으로 결론 지어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핵심가치에 근거 된 것일까요?

'인간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이 들어 있지 않으면 그 존재는 단지 육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좀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고깃덩어리란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위의 인간 세상을 보실 때 갖고 계시는 핵심가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머물지 않아도 여전히 임금일 수 있고 재벌 총수일 수 있고 위대한 학자역시 될 수 있고 남편 부인 엄마 아빠 등등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치 기준에서 보자면 그 모두가 인간이 아니라 다만 육체라는 것이지요. 인간들끼리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다 생각하는 갈대다 합니다만 하나님의 핵심 가체에 의지해서 말하자면 죄송하지만 그냥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만물 중 으뜸가는 고깃덩어리란 겁니다.

3) 오늘 본문에도 핵심가치를 따른 하나님의 세상 경영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재판을 받는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죄목을 확정함도 없이 사도 바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의 총독부 감옥에 구금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벨릭스는 가고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유대인들은 총독이 새롭게 바뀌는 때를 틈타 2년이나 지난 지금 또 다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는 새 총독에게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관한 재판을 열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호송하는 동안 죽이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러나 총독 베스도는 이를 거절하고 결국 가이사랴에서 세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세 번 아니라 열 번이 열린들 없는 사실로 고소를 하니 재판이 성립이나 하겠습니까? 결국 무산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광대한 제국 내 어디서든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싫을 경우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선언하면 그

누구도 이 요구를 함부로 묵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4) 우리는 세 번씩이나 열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에 대한 기록을 통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고소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대면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떤 이유로든 바울과 사적으로 만나고 이런 저런 대화라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사회에서 지체가 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천부장입니다. 백부장이나 오십 부장도 아니고 말입니다. 천부장이란 요즘 군대의 지위로 말하면 대대장이나 연대장 급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전임 총독 벨릭스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이제는 새 총독과 면식을 트게 됩니다. 물론 그러는 사이에 실제로 계속 그리스도인 형제들과의 만남이 있었겠지만 누가가 지금 이런 일련의 지체 높은 이방인들과의 만남에 관심을 두고 바울의 신변상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입에서 대 로마 제국의 지존인 황제와의 만남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끔 까지 되었습니다.

5) 이 지체 높은 이방인들과의 만남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 바울의 갈 길을 섭리하시는데 당시 세계 제일의 슈퍼 강대국인 로마제국의 권력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까지 보내시려는 것이 계획이십니다. 그 계획을 위해 도로를 놓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야할 로마까지의 길을 부산가는 경부선으로 비유하자면 천부장은 수원이고 총독 벨릭스는 대전이고 새총독 베스도는 대구입니다. 이제 황제는 부산인 셈이지요. 그리고 황제 이름으로 로마로 가서 바울은 황제에게 특별히 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핵심가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십자가 복음 앞에서 로마제국의 황제의 위치가 뭐 별다른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복음을 위한 길이 되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실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황제나 총독이나 왕이나 천부장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마음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역사 경영의 중심축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축은 황제 가이사라고. 그리고 황제를 정점으로 그 밑에 원로원과 총독들이 있고 분봉왕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있으며 하늘의 별같이 많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로마를 지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광대한 로마제국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 역사를 돌리시는 핵심 축은 언제나 복음을 마음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현재 이 세상에 십자가 복음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복음을 마음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다합시다. 그렇다

면 하나님께는 또 한 번의 대홍수 심판은 그리 힘 드신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지 않는 사람을 인간이 아니라 육체라 여기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가치입니다. 이제 다시 대홍수 같은 심판이 없게 하시려고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게 오셨고 들리게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의 핵심가치입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 예수님만 빼면 그냥 죽정이 들의 곳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악이 관영한 지구를 멸절 시키시지 않고 존립하게 하시는 이유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이 지구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아홍수 때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육체로 살고 있는 존재 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핵심가치인 십자가에 비추어 생각할 때 그들이 귀한 존재인 이유는 언젠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일 날이 올수도 있을 것이라는 미래적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거듭 확인하는 바이지만 모든 인간은 단지 육체일 뿐입니다. 어떤 지위에 있어도 어떤 외모에 그 어떤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어도 말입니다.

6)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중심축이 뭘까요? 미국 대통령이요? 중국 주석이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돌아가기 위한 중심축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대통령입니까? 민주 국가인 만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 중심축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국가 총생산에 어마어마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몇몇 재벌 그룹들입니까? 아닙니다. 혹시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그런 중심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착각은 자유입니다. 말도 아니라 여기실지 모르지만 저기 충정도 시골에서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고추농사 짓는 할머니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북을 억제시키고 계시고 삼성그룹을 그만큼이라도 굴러가게 하고 계신다고 믿으면 진리에 더 가깝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천부장과 총독들 그리고 황제까지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도바울의 선교여행 길을 위해 한 구간씩을 맡은 자들로 기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적어도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는 다는 고백을 쉬지 않고 있고 또한 그 고백대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한 그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곳의 상황과 역사의 중심축이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위한 핵심가치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 시도 잊지 않고 마음에 모시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되기 어렵습니다. 재벌총수 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역사의 중심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핵심가치이신 십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대통령이 되며 재벌총수가 되며 학 박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제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마음대로 제가 가는 곳마다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